

어수선한 연말, 집밖보단 집밥

‘최순실 사태’ ‘김영란법’에 송년회 모임 대폭 줄고 닭고기·채소 등 조리용 요리 재료 매출은 급증세

“시절이 어수선할 때는 집이 최고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바깥이 소란스럽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탓에 ‘연말 모임’이 줄고 있다. 반면, 가까운 사람과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집밥 송년회’가 늘고 있다.

12월 광주지역 호텔, 식당 등지에 따르면 송년회, 김영란법 등의 악재가 겹쳐 연말 송년회 예약이 저조하다. 흔히 연말 잦은 송년회 덕분에 유명 식당과 호텔 연회장 등은 11월 말과 12월 초순에는 대부분 예약이 마무리되지만 올해는 이에 못 미치는 곳이 많다는 게 업계의 하

소연이다. 직장인들의 단골 송년회 장소였던 광주시 동구 금남로 A일식의 경우 예년과는 달리 이날 현재 예약 건수는 지난해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인근의 다른 고깃집의 사정도 비슷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 동문의 송년회가 잦았던 이곳도 지난해 대비 연말 예약은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 고깃집 업주는 “한우가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고, 김영란법 때문에 눈치 보

여 동문 모임을 감소시키는 경향”이라며 “대통령 탄핵 등으로 마음 놓고 술을 마실 수도 없어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발표한 ‘2016년 3/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3분기 경기지수는 67.51p로 2분기(70.55p)보다 더 침체했고, 연말을 포함한 4분기에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가까운 사람들과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해 송년회를 지르는 소비자들은 늘고 있다. 광주지역 이마트 5곳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집에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요리 재료의 판매가 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인 지난 9월 28일 이후 지난 10일 광주지역 이마트 매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채소 등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재료 중심으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집안 전치의 대표 음식재료인 돼지고

기의 경우 이 기간 18.1%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고, 돼지갈비는 63.8%, 보쌈용 돼지고기는 24.1%의 성장세를 보였다. 또 닭고기는 34.8%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는데 묶음탕용 닭고기의 소비(47.7%)가 많았다. 집안에서 음식 준비를 하려는 사람이 많아 오이(61.7%), 버섯(44.9%), 호박(20.9%), 시금치(6.1%) 등 채소류의 판매도 31.2% 늘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근혜 퇴진 촉구 풍물굿 지난 11일 오후 광주시 북구 비엔날레 광장에서 생활정치발전소와 주민 풍물모임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풍물굿 공연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대상’ 우병우 검찰서도 수사 받는다

변호사 수입료 축소 신고 의혹·국감 불출석 등 수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것이냐는 의혹 속에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우병우(49·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특검은 물론 검찰에서도 잇따라 수사를 받게 된다. 변호사 시절 수입료 ‘축소 신고’ 의혹과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인해 고발된 사건을 특검이 아닌 검찰이 계속 수사하게 되면서 우 전 수석은 조만간 특검과 검찰에 모두 소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60·구속 기소)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철 서울중앙지검장)가 해산하면서 우 전 수석과 관련한 여타 사

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있어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우 전 수석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 혐의의 수사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유사수신 투자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양돈업체도나나 대표를 몰래 변호하고 수입료를 축소 신고해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하며 9월 그를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애초 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했으나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의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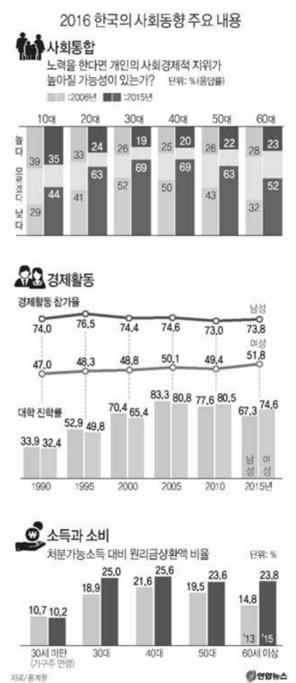
무유기 혐의를 살피면서 함께 수사했다. 이외에 우 수석이 올해 9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사건 역시 특검이 아닌 검찰에서 수사하게 된다. 우 전 수석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검 연계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나는 흡수저” 급증... 계층이동 기대감 낮아져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최하층” 20%로 늘고 “중간층” 53%로 하락

지난 20년간 자신을 ‘최하층’이라고 인식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계층이동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가 꾸준히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보다 노인범죄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통계청이 펴낸 ‘한국의 사회동향 2016’에 따르면 소득·직업·교육·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994년엔 약 12%만이 6개 범주 중 최하층을 꼽았지만, 2015년에는 이 비중이 약 20%로 증가했다. 반면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0%대에서 53%로 낮아졌다. 세대 내 계층적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점차 득세하는 모습이다. 1994년에는 일생동안 노력을 통해 개인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60.1%에 달했지만 작년에는

21.8%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부정적 응답은 5.3%에 불과했던 것이 20년새 62.2%로 수직상승했다. 특히 2015년 현재 30~40대 10명 중 7명 가량이 비관적 인식을 나타냈다. 자녀세대의 계층적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10명 중 3명만이 낙관적이었고 2명은 유보적, 5명은 비관적이었다. 한국의 총인구가 1994년~2013년 10% 증가할 때 61세 이상 노인인구는 2.2배로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노인 수는 8120명에서 1만5997명으로 두배가 됐다. 한편 인구 10만명당 61세 이상 횡범 범죄자 수는 25.6명에서 약 5.9배인 151.5명으로 급증했다. 노인 범죄자 증가 폭이 노인 인구 증가 폭의 약 3배에 달하는 셈이다. 노인범죄는 전반적으로 재산·폭력·형악범죄 순으로 많았다. 2013년 노인 재산범죄자는 67.4명, 폭력범죄 44.7명, 형악범죄 3.4명이었다. 이중 형악범죄자는 1994년 0.3명에 비교하면 11.3배로 늘어난 것이다. 노인이 살인·강도·성폭력 등 형악범죄를 더 저지르게 된 데 대해 민수홍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노인들의 육체적 건강상태가 과거보다 향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 특검 고발

조윤선 장관 등도 포함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수사팀에 고발했다.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등 12개 문화예술단체는 12일 전 실장의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특검팀에 고발장을 냈다. 피고발인에는 김 전 실장 외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광영·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서병수 부산시장 등도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김영란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의 비방록을 근거로 김 전 실장이 2014년 8월 세월호 참사를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호일’의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해 9월 세월호 생존자 구조작업에서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내용의 다류 멘타리 영화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차단하도록 모의하고 계획이 불발되자 이용관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연합뉴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수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정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미수금 회수대행

- 못받은 돈 -

▶ 채권 추심(회수) 전문

- 민사 채권: 판결문, 공증 외
- 상사 채권: 물품/공사/용역/매매대금, 장비대여 대금, 상가보증금 외

▶ 채무자(개인·법인) 재산 및 신용조사 (부동산, 차량, 중기, 거래은행, 신용상태 등)

▶ 연락두절 채무자 및 실거주지 파악

▶ 차용증, 각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 거래장부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명쾌한 상담 가능!

채권 추심 경력 20년 노하우

새한신용정보(주) (금감위 허가업체)
010-8607-1122
(062) 513-4307 (전남대 법대출업)

정직·성실, 최선을 다해 회수해 드립니다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천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 특징

돈벌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천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통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6. 11월 21일(월) ~ 12월 23일(토)
- 수업기간: 2016. 12월 22일(목) ~ 2017년 2월 29일(목)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강료: 12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igelong
- 접수문의: 062)230-7700 ~2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 무료 대 특강

부동산 이곳에 투자하라!

99% 적중률... 누구에게나 속사~원한 부동산 실전문 투자 방향제시!!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311호)
일시	2016. 12. 14(수)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 (사전 예약)

*세미나 참석하신분은 1:1 투자상담시 상담료 무료

강의내용

- 전라남도 개발계획에 따른 실투자처 공개
- 수익형부동산 투자의 모든것 한방에 끝내기
 - 수익형부동산의 과학적 투자기치 분석법 공개
 - 수익형부동산 투자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 및 피해야 할 위험 분석
 - 광주/전남 지역 최고의 입지와 매도/매수 타이밍 실투자 매물공개
 - 수익형 부동산 유형별/물건별 분석 및 투자노하우 전수
- 국토개발 및 농지법 개정에 따른 토지투자전략 대 공개
 - 개발지 토지 소유투자로 수익내는 매물 찾기법 공개
 - 돈이 되는 농지투자는 어떻게 투자하는걸까?
 - 미래가치 확실한 개발지 가치 제대로 파악하는 노하우 완전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 투자 전문가

(현) 영지F&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컬럼 게재